



관내 동향

□ 사천시, 인천공항 항공 MRO 추진 움직임에 발칵

-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국회의원이 지난 6월 19일 인천 중심의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‘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 개정안’을 대표 발의
- 발의된 개정안은 항공기정비업, 교육훈련사업 지원 등 인천공항공사의 목적사업을 추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함
- 사천시와 사천시의회, KAI, KAEMS, 지역 항공산업체 등은 “지역의 항공산업기반이 통째로 흔들릴 우려가 높다”며 반발
- 사천, 진주, 통영, 거제 상공회의소는 ‘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철회 촉구 대정부 건의문’ 서명식을 가지며 법률안이 통과된다면 MRO산업의 중복투자로 인한 혈세낭비와 국책사업의 변질 등이 예상된다며 비판

□ 하영제 의원 "인천공항공사 항공MRO 추진 안돼"

- 하영제 미래통합당 사천·남해·하동 국회의원이 인천공항공사의 항공 MRO 사업 추진을 위한 ‘인천국제공항공사법’ 개정 법률안 발의에 반대 표명
- 인천에서 항공MRO 사업이 추진된다면 사천 항공MRO 사업을 중점 육성하여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게 된다고 주장
- 공항공사가 직접 항공MRO 사업을 하는 것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설립목적을 위배하며, 1등급 운영증명을 받은 공항은 항공MRO 사업을 할 수 없다고 되어있는 ‘한국공항공사법’과도 정면으로 배치



도내 동향

□ 국산 헬기 수리온, 경상남도 소방헬기로 선정

- KAI에서 제작하는 헬기 수리온이 경상남도 소방안전본부의 ‘다목적 소방헬기 구매사업’에 선정되어 계약 체결
- 수리온은 2012년 육군 기동헬기(KUH-1)로 개발되어 상륙 기동, 의무 후송전용, 경찰, 소방, 산림, 해경 등 총 7개 기종으로 파생되어 군·관 헬기로 활용 중
- 수리온은 첨단 시스템과 임무 장비를 장착하여 도서·산간지역에서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예정
- 정부 각 기관의 국산헬기 도입이 확대됨에 따라 향후 수리온의 해외 시장 진출도 가속화 될 전망

□ 항공산업체를 위한 민관 합동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

- 어려움에 처한 국내 항공산업체를 위해 KAI와 40개 KAI 협력사가 각 10억 원, 경남 지자체가 6억 원, 고용노동부가 26억 원을 출연해 52억원 규모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
- 공동근로복지기금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중소항공부품협력사 근로자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자녀 학자금 지원, 명절휴가비 등 생활원조의 형태로 지원될 예정



국내 동향

□ 충북 경제자유구역, 청주공항을 기반으로 회전익 항공기 MRO 집중 육성

- 정부가 충북 경제자유구역에서 회전익 항공기 MRO 및 항공연관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로 함

- 정부는 30일 제117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'황해 경제자유구역 평택 포승(BIX)지구 개발계획 변경(안)' 등 3건의 안건을 심의·의결하고 1건을 보고
- 충북 경제자유구역은 청주공항을 기반으로 회전익 항공기 MRO 및 항공연관 분야 산업 중점 육성을 위해 산업시설 용지를 1천227㎡로 확대하고, 유치업종도 확대하는 안건을 승인

□ 美 한국 고등훈련기 T-50 포함 공개입찰 시작

- 2018년 KAI는 록히드마틴과 T-50으로 미 차세대 고등훈련기(APT) 사업에 입찰했으나 보잉-사브 컨소시엄에 고배를 마심
- 미 공군이 선정한 훈련기 T-7 레드호크는 2023년부터 인도되기 때문에 공백을 우려하여 훈련기 임대를 위한 입찰을 진행
- T-50은 올해 1월 17일 단독 입찰자로 선정 되었으나, 절차와 예산으로 인해 경쟁입찰에 참여하게 됨
- 미 공군의 요구성능을 충족한 T-50이 경쟁 기종에 비해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나, 코로나19로 미 정부의 예산이 빠듯한 만큼 가격 역시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



- 경공격기로도 활용될 수 있는 고등훈련기
- 부품은 32만 개, 내부배선 총 길이는 15km
- 길이 : 13.14m · 폭 : 9.45m
- 높이 : 4.94m · 기체 중량 : 6.3t
- 최대 항속거리 : 2592km
- 최대 비행고도 : 16km
- 최고 속도가 마하 1.5로 매우 고속

국산 초음속 고등훈련기 T-50



해외 동향

□ 항공기 제조사 · 항공사, 대규모 감원 진행

- 코로나19로 항공 여행 수요가 줄어들고 항공기 주문이 취소되면서 항공기 제조사와 항공사에서는 대규모 감원이 진행중
- 유럽의 **에어버스**는 내년 여름까지 전체 직원의 17%에 해당하는 1만 5000명, 미국 **보잉**은 지난 5월 전체 직원의 10%에 해당하는 1만2천여명을 감원한 데 이어 8월말까지 1천 30명 추가 감원 계획 발표
- **에어프랑스**는 내년 말까지 7천5백명을 감원할 계획이며, **에어캐나다**는 전직원의 절반 이상, **영국의 이지젯**은 4천5백명 감원 발표

□ 50년 역사 보잉 747기, 약 2년 뒤 생산 종료

- 에어버스의 A380에 이어 보잉의 대형기종 747 점보제트기가 약 2년 뒤 생산 종료될 예정
- 항공사들이 승객을 채우기가 쉽고 연료가 덜 드는 중소형 비행기를 선호하면서 지난 10년간 점보제트기의 주문이 감소함에 따라 생산중단 결정
- 블룸버그는 2층 구조에 4개의 엔진을 장착한 초대형 제트기 시대의 종료를 시사한다고 평가



- 보잉이 개발한 대형 여객기
- 첫 비행 : 1969년 2월 9일
- 주요 사용자 : 대한항공
루프트한자
- 최고 정원 : 524명

보잉 747기

작성일	2020. 7. 9.(목)	보고일	2020. 7 17.(금)
부서명	항공경제국 우주항공과	담당자	오은미(055-831-3470)